

결과보고서 요약

사업기관	국토문제연구소		
사업명	초국적 탈북민 이주자 (Transnational North Koreans) 연구		
사업책임자	성명	소속	직위
	신혜란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사업기간	2019.4.1.~2020.2.28	사업비	
<p>1. 사업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북자 초국적 네트워크 - 노동이주와 탈북 루트 - 탈북가족의 초국적 이동과 적응 - 탈북자들의 정체성이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수행 (perform) 되는 방식에 대한 연구 - 탈북자의 종교성 및 문화적 적응도 연구 <p>2. 사업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및 세계 여러 나라에 정착한 탈북자 개인과 단체들의 초국적 네트워크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함 ○ 북러 간 노동이주 메카니즘이 탈북 루트로 변형, 활용되는 과정을 조명해, 세계 주요 탈북루트 중 하나인 러시아 루트의 특성을 밝히고자 함. 이와 관련해 '이주노동자와 난민 사이' 경제적 존재인 러시아 탈북민의 특수성을 조명하고자 함 ○ 탈북과정 뿐 아니라 남한 정착 이후 나타나는 다양한 사례의 탈북가족의 초국적 이동 과정과 그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초국적 돌봄, 가족 역할과 소통, 적응 양상을 가족구조이론, 애착이론, 가족관계이론, 모호한 상실감 개념 등을 통해 살펴보고자 함. ○ 탈북자들의 정체성이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수행되는 방식을 다양한 층위에서 접근하여 연구 ○ 탈북자의 (한국 내) 제도종교 참여의 동기, 이유, 수준, 현황을 파악해 한국에서의 문화적 적응 정도를 가늠해본다. <p>3. 사업 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밖 탈북민 대표 정착지인 미국 엘에이와 영국 런던에 있는 탈북민들은 공통적으로 북한에 송금하여 가족, 친지들과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한인타운 내 한인들과 범 한민족 네트워크를 만들며,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정치활동을 위한 세계/지역 네트워크 발전시켰음 - 이주자/난민 정체성에 대한 진전된 이해 속에, 포괄적인 이주 및 난민 국제 레짐의 틀 속에서 다수 행위자의 공조를 통해 추진될 필요. - 북한이탈주민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 표현하는 자기재현은 사회적 재현과 상당한 차이를 보임 - 북한의 기층문화나 민속, 특히 민간신앙 연구는 남북 민중의 정서가 기층적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음 			

국토문제연구소

1. 사업 배경

□ 개요

- 사업명: 초국적 탈북민 이주자 (Transnational North Koreans) 연구
- 기관명: 국토문제연구소

□ 추진 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기존의 탈북자 디아스포라 연구는 한국, 중국, 러시아, 유럽 등 주요 정착지에서 그들의 적응,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였음. 반면 탈북자들의 네트워크와 이동, 흐름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난민의 지옥'이라 불리는 러시아 난민정책의 보편적 맥락 속에 러 탈북난민의 현실을 진단하고 전망을 제시하고자 함.
- 기존의 탈북가족 연구는 초국적 이동 과정에서 분리와 재결합 등의 가족구조의 전이 경험을 이해하는데 기여하였으나 주로 북한-중국 등 제3국-남한으로 이어지는 탈북과정을 중심으로 연구되었음. 또한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탈북가족의 관계 및 의사소통, 적응 양상에 대한 연구는 드문 편임.
- 기존의 탈북자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북한주민 또는 남한주민의 이분법적 틀 안에서 논의되어 온 경향. 이러한 관점은 정체성 논의를 국민정체성으로 환원시켜 단순화하는 문제점 극복.
- 한반도의 통일은 제도적 통합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연결되고 새로운 연대감이 창출될 수 있는 통일이어야 함. 이 과정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한반도 구성원들 간 정서적, 이념적 공감대의 확장임.

○ 목적

- 한국 및 세계 여러 나라에 정착한 탈북자 개인과 단체들의 초국적 네트워크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함.

- 북러 간 노동이주 메카니즘이 탈북 루트로 변형, 활용되는 과정을 조명해, 세계 주요 탈북루트 중 하나인 러시아 루트의 특성을 밝히고자 함. 이와 관련해 '이주노동자와 난민 사이' 경제적 존재인 러시아 탈북민의 특수성을 조명하고자 함
- 탈북과정 뿐 아니라 남한 정착 이후 나타나는 다양한 사례의 탈북가족의 초국적 이동 과정과 그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초국적 돌봄, 가족 역할과 소통, 적응 양상을 가족구조이론, 애착이론, 가족관계이론, 모호한 상실감 개념 등을 통해 살펴보고자 함.
- 탈북자들의 정체성이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수행되는 방식을 다양한 층위에서 접근하여 연구
- 탈북자의 (한국 내) 제도종교 참여의 동기, 이유, 수준, 현황을 파악해 한국에서의 문화적 적응 정도를 가늠해본다.

2. 사업 내용

□ 사업 추진 내용

- 한반도 밖 탈북자들의 주요 정착지인 로스앤젤레스와 런던을 조사, 탈북자 네트워크를 밝혀냄



- 정치활동 중심의 탈북민 글로벌 네트워크, 유럽 네트워크는 소수의 탈북민들이 참여하지만 미디어의 관심을 받아 존재감이 있고 탈북자들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효과 가짐
- 한인타운 내 한국인들과 한국인들의 교류는 분단으로 인한 문화적 차이와 출신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확인시켜주고 남북한 개방 후 사회통합에 대한 시사점을 줌. 런던에서 탈북민들의 단체활동이 활발하고 한국 이주자들과 교류가 꽤 있는 데 비해, 로스앤젤레스에서는 탈북민의 존재감이 적고 단체활동도

미비하고 한국인 개인이나 단체의 자선활동, 탈북민 교회활동이 주임.



- 북한 가족, 친지로의 송금: 경제적 효과, 국경의 금지된 이동을 극복하는 효과, 북한사회와 외부에 대해 업데이트를 하는 사회적 효과

○ 러시아 탈북난민 현황과 전망

- 2012년 급증, 연평균 약 70명의 탈북난민 존재하나 엄밀한 의미의 난민은 단 1명
- 탈북 난민의 다층적 정체성: 자발적 노동과 강제노동, 이주자와 난민 사이: 출신국 북한 / 수용국 러시아 / 국제정치 패러다임 사이
- 이주자/난민 정체성에 대한 진전된 이해 속에 포괄적인 이주 및 난민 국제레짐의 틀 속에서 다수 행위자의 공조를 통해 추진될 필요.
- 러시아의 이해와 인식의 개선, 난민법 포함 이주정책 전반 점검 필요

○ 탈북민의 초국적 이동과 가족 의사소통

- 1) 탈북민의 가족 의사소통은 제한된 범주로 이루어지며 이는 초국적 이동 중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유지되는 탈북자의 신분과 관련됨
 - 탈북 결정이 충분한 정보 없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가족과의 의사소통없이 이루어짐
 - 탈중과정에서는 무국적자이자 복송될 수 있는 신분으로 이루어짐
 - 탈남 과정에서는 출국 당시는 한국민으로 영국에 도착해서는 자발적으로 탈북민의 정체성 강조
- 2) 북한의 통제 시스템에 따른 두려움의 의사소통구조가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침

- 가족의 안위와 생존, 정치적 압박에 대한 염려로 가족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탈중, 탈남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침.
- 두려움 의사소통은 가족과 구체적인 이주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지 못하거나 이동과정 중에도 가족과 정서적 지지의 역할을 하지 못함

3) 가족에 대한 그리움, 송금, 가족 방문과 초청, 유학 등은 가족 의사소통 촉진 요인

- 가족의사소통은 송금, 가족 방문, 유학 등의 이유로 활성화되기도 하며 가족 유지 방법으로 작용
- 송금, 가족 방문과 자녀 유학 등은 가족 의사소통 촉진 요인이자 가족 유지 요인으로 작용

4) 가족 의사소통은 자녀의 정체성 형성 및 가족 적응에 영향을 미침

- 탈북민의 초국적 이주는 자녀의 교육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초국적 이동과정 및 정착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녀와의 의사소통은 자녀의 정체성 형성과 적응에 주요한 영향을 미침

○ 북한이탈주민의 재현:국민과 난민 사이

1) 북한이탈주민의 이중적 위치

- 국민 vs 난민
- 헌법 제3조: 대한민국 국민
- 국제관계법상: 준외국인
- UN난민기구 인정: 위임난민
- 우리민족 vs 북한사람
- 한민족, 민족통일
- 같은 민족이긴 하지만 다른 시간대에 있는 대상
- 직업교육, 취직알선, 대학특례, 정착지원 등의 보호 및 지원대상

2) 현재 남한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일반주민이 갖는 이미지는 주로 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재현

- 극화(dramatized)되거나 극한(extreme) 형태의 이미지가 주류
- 북한이탈주민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 표현하는 자기재현은 사회적 재현

과 상당한 차이를 보임

3) 북한출신으로서의 정체성

- 모든 인터뷰 대상자들은 자신을 구성하는 여러 정체성 중 북한출신으로서의 정체성이 갖는 비중은 전체 5%-10% 미만으로 응답
- 남한생활에의 적응과 정착을 최우선시하는 상황에서 낮게 평가되는 경향
- 남한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접할 시 다시금 강화되는 측면
- 탈북자는 언제까지 탈북자로 인식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

4)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정체성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때 전형성에서 벗어난 여지가 생김

- 북한이탈주민이 대상화되는 객체가 아니고 목소리를 내는 주체로서 자리잡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 필요

○ 탈북자를 통해서 본 북한 종교문화의 심층

1) 심층적 종교성의 자발성

- 민간신앙의 발흥 현상에서 북한 주민의 진정한 자발성을 읽을 수 있음
- 민간신앙의 발흥은 한편에서 보면 북한 사회가 오랜 통제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며, 다른 한편에서 보면 그런 모습은 남측의 기층적 정서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

2) 북한의 무속

- 무당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지만, 몰래 약식 굿(광의의 무속 의례)을 하기도 함. 신당을 공식적으로 모실 수 없고, 신상을 걸어들 수도 없지만,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손님에게 접을 봐주기도 함.
- 점보기의 경우에서처럼, 절대자처럼 여겨지던 김일성의 사후에, 그리고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기층적 무속 신앙이 점차 솟아오르고 있음.

3) '민족'의 기층적 동질성

- 통일은 영역별로 그리고 주체별로 상이한 속도, 차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포용하면서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과정

- 북한의 기층문화나 민속, 특히 민간신앙 연구는 남북 민중의 정서가 기층적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작업
- 북한의 민간신앙 연구는 남이나 북이나 민중의 내면으로 들어가면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동질성의 확보에 공헌할 가능성이 큼.

□ 일정별 추진 사항

일 정	추진 내용
2019. 3- 2020. 2	2달에 한 번씩 회의를 통해 각 연구의 진행상황 공유, 내용에 대한 토론
2019. 11. 26	[통일평화구축기반] 11. 26. 연합학술대회에서 독자적인 세션을 두고 발표

3. 사업 성과

□ 사업 성과 (구체적 내용 기술)

- 탈북민 초국적 네트워크, 러시아 내 탈북민, 영국 탈북민의 가족, 한국 탈북민의 정체성, 북한의 신앙에 관한 현장조사 함
- 위의 5가지 세부주제별로 출판물 목적으로 하는 학술지 논문 초고 완성
- 2019년 [통일평화구축기반] 11. 26. 연합학술대회에서 독자적인 세션을 두고 발표함
- East Asian Regional Conference in Alternative Geography (EARCAG) The 4th Workshop on the Geopolitical Economy of East Asian Developmentalism에서 발표 (발표자: 신혜란, 발표제목: The transnational ethnic networks in geopolitical tensions: North Korean defectors' links)

□ 관련분야 기여도

- 탈북자 디아스포라 초국적 네트워크 연구의 이론틀을 발전시켰음
- 심층 연구로 발전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연구방법, 사례 선정과 선행연구를 실시했음

-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어 북한이 개방하게 되면 남북한을 오가게 되는 에이전트의 네트워크와 송금이 북한의 부동산 투자, 지역발전을 위해 발전할 전망을 제시함.

- 탈북가족의 초국적 이동 속에서 가족관계 및 적응 과정을 살펴보고 탈북가족의 맥락적 특이성을 밝혔음
-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어 세계 각국에 이산된 가족들이 재결합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과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및 해결방안을 모색함
- 탈북자 정체성 논의에 있어서 다면성과 복합성 제시
- 사회적 조건과 상호작용 안에서 탈북자 정체성이 조율되고 동원되는 것의 함의 분석
- 향후 통일시대에 급격히 증가하게 될 북한 출신 주민들의 재사회화 과정과 연관한 정책 제언의 기반 마련
- 탈북자의 문화적 적응도를 통해 장구한 동질감과 단기적 이질감 간의 차이를 구명하는 근거를 마련함.
- 남북간 차이가 한반도 전체 구성원들 간 정서적, 문화적 조화로 작용하도록 하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함

4.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사업평가

- 사업의 적절성
 - 통일기반구축사업에서 핵심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사회통합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초사업의 기반을 마련하여 적절한 사업이었음.
 - 이제껏 통일관련 연구는 지정학적 시나리오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정작 통일의 기반이 되거나 장애가 될 사회통합 문제는 소홀히 다루어졌음
- 사업의 효율성
 - 1년의 기간은 기초연구사업에 짧은 편임
 - 향후 기초연구가 더 이루어지고 더 확대된 주제로 발전시킬 가능성 있음
- 사업의 영향력

- 서울대에 탈북민 연구팀이 만들어져 외부와 네트워크 시작함
- 탈북민 연구를 이주민 연구의 시각에서 하는 공감대 형성
- 사업의 발전가능성
 - 큰 연구 프로젝트로 발전시킬 계획 있음
 - 논문, 단행본 출판 계획 있음

□ **미흡한 점(한계) 및 개선(보완)할 점**

- 1년간 기초연구가 서둘러 진행되었음.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보완 필요.

□ **향후 계획**

- 2019년에는 5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했다면 향후 연구는 다양한 지역적 맥락을 강조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탈북민의 주요 거주지를 중심으로 다른 맥락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주요 아젠다를 발굴할 계획임
- 2022년 연구재단 일반공동연구에 <탈북민과 사회통합 (가안)> 지원할 계획임

□ **건의사항**

- 효과적이고 사생활 보호 원칙을 지키는 질적연구 현장조사를 위해 익명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인터뷰 사례비 등 비용처리 행정지원이 강화되어야 함

5. 성과 관련 지표

□ **대표 사업 실적**

- “The geopolitical ethnic networks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Los Angeles and London”을 학술지 <Antipode>에 투고할 예정
- “Representation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Between citizens and Refugees”를 <Asian Journal of Peacebuilding>

에 투고할 예정

- “탈북민의 초국적 이동과 가족 의사소통”을 학술지 <한국가족관계학회지>에 투고할 예정
- “탈북자와 북한 종교”를 학술지 <종교연구>, <종교문화비평>, <담론 201> 중 한 곳에 투고할 예정
- “North Korean Refugees in Russia”를 학술지 <Slavic Review>에 투고할 예정

□ **성과 자율 지표**

- 2019년 4월 1일 사업시작일 기준 2년 이내 사사표기 된 논문 게재 예정 5건